

132. 방직공에서 발생한 제5요추-1천추간 추간판탈출증, 제4-5요추 추간판 팽윤

성별	여	나이	45세	직종	방직제사및화학섬유제품제조업	업무관련성	낮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

1. 개요: 근로자 최OO는 OO산업(주) OO공장에 1996년 2월 28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던 중 제4-5 추간판 팽윤, 5요추-1천추간 추간판탈출증' 상병명으로 진단받았다.

2.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: 입사후 1년 동안 지관 박스를 바닥에 놓고 허리를 굽혀 미는 작업을 수행하였고, 1997년 이후에는 기계사이 통로를 순회하면서 절사된 실의 매듭작업, 지관 꼬는 작업 및 캐리어 이동 작업을 수행하였다. 연사 공정은 크게 합사/연사 치즈 들기/놓기 작업, 지관 꼬는 작업, 매듭작업, 캐리어 이동 작업으로 나눌 수 있다. 합사 및 연사 치즈를 올리거나 꺼내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들은 대부분 남성 직원들이 수행한다. 지관 박스 및 지관 빼는 작업은 캐리어를 이용하여 이동하며 운반, 불량 처리 및 빼기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. 불량처리시 플라스틱 지관은 칼로 실을 자르고 종이 지관의 경우에는 실을 풀어 지관을 박스에 넣은 후 박스를 밀고 다닌다. 한 박스에 216개의 지관이 들어가므로 플라스틱 지관(65g)은 $14.04 \text{ kg}(0.065 \times 216 = 14.04 \text{ kg})$, 종이 지관(30g)은 $6.48 \text{ kg}(0.03 \times 216 = 6.48 \text{ kg})$ 가 들어가므로 지관 박스 자체무게(2 kg)와 합하여 총 8.5~16 kg로 조사되었다. 운반시 지관박스는 보통 7~10 kg 정도 되었다.

3. 의학적 소견: 근로자 최OO는 고 1 시기인 1996년 2월 28일 OO산업(주) OO공장에 입사하였다. 2005년 9월 28일 사고후 휴직 치료하고 동년 11월 30일 퇴사하였다. 고혈압, 당뇨, 결핵 등 만성질환력은 없었으며, 입원/수술력도 없었다.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, 운동도 특별히 하지 않았다. 키는 164 cm, 몸무게는 58 kg이었다.

4. 결론: 이상의 조사결과 근로자 최OO는

- ① 제5요추-1천추간 추간판탈출증, 제4-5 추간판 팽윤으로 진단되었고,
- ② 지관 꼬는 작업과 매듭작업, 지관 꺼내는 작업은 하루 7시간(420분)을 기준으로 30.1~60.3%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 제조업 중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,
- ③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캐리어를 운반하는(밀고 가는) 작업을 제외하고는 Action Level 1로 나타나 요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,
- ④ 사고의 목격 또는 재해 발생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, 또 추간판탈출 소견이 외상성 탈출이 아닌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되어

근로자 최OO의 '제5요추-1천추간 추간판탈출증, 제4-5요추 추간판 팽윤'은 작업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